

시론

기억은 추모를 넘어 미래를 선택한다



김선옥 아동문학가·교육학 박사

6월이 오면 광주의 시간은 달력보다 먼저 마음속에서 움직인다. 햇살은 질어지고 거리의 나무들은 초록을 더해가지만, 우리 안에는 계절보다 깊은 시간이 흐른다. 누군가는 묘역으로 향하고, 누군가는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내 바라본다. 또 어떤 이는 말없이 지나간 이름 하나를 마음속에 불러본다. 이 도시의 시간은 단순한 날짜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감각이며,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의 형태로 곁에 머물러 있다.

보훈의 달은 흔히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기간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기린다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의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삶 속에서 다시 질문하는 일이다. 누군가가 남긴 희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지 되묻는 과정이다. 기억이 과거에만 머문다면 추모는 행사로 끝난다. 그러나 현재와 만나는 순간 그것은 살아 있는 가치가 된다.

광주 사람들에게 기억은 더욱 특별한 곁을 지닌다. 5월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 정신은 계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세월은 흐르고 거리는 변했으며 도시의 풍경도 새롭게 바뀌었다. 그러나 함께 견디고 함께 일어섰던 시간은 공동체의 뿌리가 되어 남아 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욱 깊은 의미로 사람 곁에 머문다.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를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책임으로 바라보았다. 개인의 선택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오래전 문장이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묵직한 울림을 남긴다.

6월은 기억의 달이면서 동시에 선택의 시간이기도 하다. 특히 6월 3일 시민의 결정은 단순한 한 표를 행사하는 날로만 머물지 않는다. 선거는 종이 위에 이름 하나를 표시하는 행위라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꿈꾸는지 스스로에게 답하는 과정이다. 민주주의는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제도가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

요즘 사람들은 정치와 역사 앞에서 쉽게 피로를 느끼기도 한다. 목소리를 내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참여보다 무관심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공동체는 무관심 위에서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거대한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성실한 관심이 모일 때 비로소 시작된다.

매칠 전 광주극장에서 상영된 10:26을 다룬 영화 역시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았다. 한 인간의 결단과 양심, 권력 앞에서의 선택이 역사를 어디까지 흔들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인물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시대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현재를 향하고 있다. 인간은 어느 순간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다.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 질문하는 능력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익숙함 속에 머무르는 순간 정신은 멈추기 시작한다고 보았다. 공동체 또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지 않을 때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

기억은 오래된 서랍 속에 넣어두는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움직여야 하는 생명의 언어다. 희생을 기억한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삶의 방향으로 삼는 일이다. 마음속 가치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기억은 살아난다. 움직이지 않는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박제된 문장이 되기 쉽다.

20세기 독일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악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거대한 비극이 특별한 악인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멈춘 평범함 속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침묵과 무관심은 때로 가장 강한 힘이 된다. 역사는 그것을 수많은 증거해 왔다.

6월의 광주는 오늘도 우리 곁에서 조용히 말을 건넨다. 기억은 뒤를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힘이라고. 추모가 슬픔으로 끝나면 역사는 잠들고, 책임으로 이어질 때 내일은 비로소 깨어난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 속에서 살아간다. 결국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잊지 않기로 했는가에 따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기억은 추모를 넘어 미래를 선택한다.

社說

텃밭 지키고 승부처 서울 농친 민주당 민생에 집중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낙승을 거뒀다. 초대 특별시장인 민형배 후보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꺾었다. 통합시의회도 대다수를 확보함으로써 주도권을 잡았다. 광주 광산구를 국회의원 보선 또한 임문영 후보가 승리했다. 통합교육감 선거는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김대중 후보가 이겼다.

기초단체장에서도 민주당은 광주 5곳 모두를 손쉽게 챙겼고, 전남에선 22곳 중 17곳을 휩쓸었다. 조국혁신당은 장흥·신안군수 2곳이고, 광양시장·강진군수·완도군수 3곳은 무소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 탈환에 실패하면서 빛이 바랬다. 정원오 후보가 다음날 오전 개표 막판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당한 것이다. 대구시장에 도전한 김부겸 후보도 역부족으로 무릎을 꿇었다. 국민의힘은 안방인 TK(대구·경북)와 경남도에 더해 서울을 가까스로 사수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린 재보선에서도 민주당은 웃지 못했다. 당초 14곳 가운데 13곳이 민주당, 1곳만 국민의힘 의석이었다. 민주당은 강세 지역에서 무난하게 당선을 확정지은 것과 다르게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된 부산 북구갑에서 하정우

후보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에게 밀려 아쉬움이 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방수통신위원회 출신 이진숙·김태규 후보가 각각 대구 달성군과 울산 남구갑에서 승리한데 이어 경기 광명시, 충남 공주시·부여·청양군까지 4석을 가져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만의 전국 단위 선거였다. 민심은 '내란 세력 심판·정권 안정론'을 앞세운 민주당 편이었다. 그러나 정권 심판을 외친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수준에는 못 미쳤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실상 선전한 셈이다. 진보와 보수 어느 한 쪽으로 쏠리지 않은 절묘한 '힘의 균형'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주당은 열세로 예측한 전북지사에서 완승하는 등 텃밭인 호남을 지키고 4년 전인 2022년의 패배를 설욕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지방권력까지 움켜쥐고 국정 개혁에 박차를 가하려던 집권 여당은 부동산 정책 등에 있어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에 최우선해야 하겠다. 물론 더 절제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는 민주당에 변함없이 절대적 지지를 보였다. 1당 독점 정치 지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 가출발선에 섰다. 중앙정부와 여권의 확실한 지원을 시민들은 염원하고 있다.

호남 최대 규모 조선대 간호대학 출범에 바란다

조선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 통합 절차가 마무리돼 독립 '간호대학'이 출범한다.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나날이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추세 요양·돌봄·재활·만성질환 등의 수요 증가와 헬스케어 웰에이징 등 보건산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 2027년 3월부터 통합 체제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입학 정원 232명 규모로 운영된다. 전국 3위, 호남권 1위 수준(4년제 대학 기준)이다.

핵심 가치는 디지털 전환으로 설정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 역량과 데이터 기반 판단 능력을 겸비한 실무형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선대의 보건의료 분야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최종 승인한 배경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오랜 숙원이기도 했다. 내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5년 간 숙의의 결실이다. 지역사회 연계 교육 시스템도 구축돼야 하겠다. 광주시가 역점 시행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광주·전남 최대 규모의 사립대학교인 조선대는 지난해 9월 조선간호대와 함께한 통합형 모델로 교육부 역점 사업인 '글로벌대학30'의 마지막 본지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비수도권 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선정 시 5년간 최대 1천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웰에이징 아시아 남바원'이라는 비전 아래 특화 인재 1만명, 창업 및 기업 유치 200개, 외국 유학생 교류 5천명 달성을 세부 목표로 삼았다. 같은 법인 내 통합 및 구조혁신형으로 도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 보건의료 환경을 선도할 맞춤형 인재들의 요람이 돼야 한다. 올해 2학기 수시모집에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대적 수요에 응답하는 본격적인 시작이다.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호남을 대표하는 간호대학의 거점으로 근본적 재설계에 반드시 성공해야 할 것이다.

문화난장



강은경 前 함평손솔중학교 교장

옛그재 카자흐스탄을 다녀왔다. 대학동아리 OM회에서 지난 해 대만에 이어 올해 여행지로 이곳을 정한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총영사를 지낸 선배가 나섬에 따라 카자흐스탄 여행이 본격 추진됐다. 4기부터 20기까지 모두 19명이 이 여행에 참여했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흠어진 힘을 하나로'라는 구호 아래, 우리는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곤 했으며 이번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첫 날, 알마티 소재 고려일보사를 방문했다. 한국어·러시아 혼용의 고려인 동포 사회의 대표적인 신문으로 꼽힌다. 1923년 창간 이래, 고려인 강제 이주 등 역사적 수난 속에서도 한글과 고려인 문화를 지켜온 유서 깊은 언론사다. 현재 매주 1회 신문이 발행되며 카자흐스탄 전역으로 신문이 배포된다. 우리는 신문사를 돌아보면서 고려일보의 남다른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우슈토크로 향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고려인이 첫발을 디뎠던 곳이다. 알마티에서 왕복 8시간이 걸리는 곳에 위치해 일반인들의 여행

포용의 나라, 카자흐스탄

코스에선 보기 힘든 장소로 꼽힌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곳을 일부러 찾았다. 기차역은 내부가 공사중이어서 철길에서만 잠깐 머물렀다. 그 당시, 추운 겨울에 갈바람이 부는 황무지에 내렸을 고려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헬렌 박 선교사가 설립하고 현재는 고려인 목사님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려인 기념관'으로 향했다. 기념관 내부에서 고려인 기념관 설립 목적, 그 당시 처절했던 우슈토크의 상황, 황무지를 옥토로 일군 민초와 영웅들의 이야기, 고려극장, 고려아리랑에 관한 글들을 읽었다. 고려인들이 최초로 생활했던 토굴, 닭장, 감자 저장고, 옥실 등도 전시돼 있었다. 특히 한야 꼬브 작곡, 김병학 작사로 2014년 12월에 만들어진 고려아리랑 노래 가사가 눈에 들어왔다. "원동 땅 불블리에 실려서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러시아 뽀뽀이 흠어져 살아가도 우리는 한가족 고려 사람~" 나오면서 우리의 뜻을 모아 목사님에게 소정의 금액을 기부했다.

홍범도 장군이 말년에 경비원으로 일하던 크즐오르다 고려극장이 1988년에 이전해 지금은 알마티에 있다. 고려극장은 1982년에 창립돼 지금까지도 고려인 동포들에게 한국어와 한민족의 전통문화, 예술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알마티는 도시 어디에서나 천산 산맥의 눈 덮인 산을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다. 그곳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기암괴석이 늘어서 있는 차른협곡, '천산 산맥의 진주'라고 불리는

콜사이 호수, 물 위로 솟아오른 전나무들이 마치 호수 위에 침을 꽂아 둔 것 같은 기묘하고 신기한 카인디 호수, 깊고 웅장한 블랙케년 등을 볼 수 있다. 말리에서만 보던 천산의 한 봉우리인 짐볼락에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니 눈이 녹아내리는 광경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멋진 풍경 안에서 선배님의 하모니가 연주를 감상한 뒤 물멍을 즐기고, 7000 노래를 합창하며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 냈다.

마지막 날,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에 갔다. 석유를 비롯한 풍부한 천연 자원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대통령 궁·바이테렉타워·한 사트'로 직선으로 길게 뻗은 길은 좌우로 독특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건물들이 늘어서 있어서 예술의 도시를 걷는 느낌이었다. 그곳은 시원한 분수대와 넓은 공간이 펼쳐져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안성맞춤이었다. 카자흐스탄의 초대 대통령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는 29년의 장기집권이 실책으로 남지만, 다민족 화합을 위한 카자흐스탄 민족 회의 창설, 소수 민족의 문화와 예술 지원, 러시아어와 카자흐의 공용 사용, 민족에 상관없이 시민권 기반의 정치 등을 펼쳐서 민족 간의 갈등을 없애고 나라를 안정시킨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현재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준다.

포용의 나라, 카자흐스탄에게는 한없는 응원의 박수를, 함께 한 대학동아리 선배님들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공손하게 전한다. '꾸벅...'

독자투고

각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 법규준수 운행으로 볼 수 있다. 그 법규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안전거리 확보는 더 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된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 정도를 유지하고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에서는 주행도로의 수치를 그대로 m로 나타낸 수치 정도를 안전거리라고 한다.

운전을 하다보면 불의의 상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 각종 동물 등이 도로에 나

차간 안전거리 확보 사고예방 필수

타나 피할때, 사람의 무단횡단시, 교통사고 예방시 등 급정차를 해야 될 상황이 전개될 때가 있다.

이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게 되면 추돌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고속도로상에서의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은 아주 위험한 행위이다.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다 앞선 차량이 급정거

를 했다고 가정했을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불을 보듯이 빠른 것이다. 대형참사 이어진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종 교통법규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특히 안전거리 확보 운전해 각종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한 대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진병진·여수경찰서 봉사파출소>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카시 광장

저마다

홍영숙

젓은 편지 햇살에 날린다

구깃작거리던 자리 제 빛이 길을 낸다

아팠던 날들 등 밀며 이리 반짝일 줄이야

※시작노트  
살아지고 비틀린 염색의 시간  
우리도 저마다의  
염색통 하나 품고 살아간다  
구겨진 자리 많을수록  
더 오래 머무는 햇살  
그건데온아름아야말로  
비로소 자신만의 빛깔로 익어간다.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시서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